

예성처럼 나타난 요술쟁이 비약 '비아그라'는 수많은 발기부전 남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비아그라로 재기에 성공한 어느 할아버지가 감격을 이기지 못해 저 세상으로 떠난 사례는 또 하나의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비아그라의 오·남용이 걱정이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지나치거나 잘못쓰면 우리는 더 큰 피해를 입는다. 비아그라의 국내 시판 규정은 심혈관 질환이 없다는 진단서 원본을 제출하는 21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1회에 2정까지 판매토록 제한하고 있다.

비아그라의 오·남용이 없어야 하겠다.

이 소문난 약의 약국 판매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 끝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심혈관 질환이 없다는 진단서 원본을 약국에 제출하는 21세 이상 성인에게만 판매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구입량에도 제한을 두어 1인당 1회에 2정, 한 달에 8정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약물의 남·오용이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을 생각해 본다면 어쩐지 최상(?)의 미봉책에 불과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

오·남용 등 부작용이 문제

비아그라는 물론 훌륭한 약이다. 피임약 이후 최대의 발명품이란 찬사도 과장만은 아니다. 존재의 이유 가운데 소중한 것 하나를 잃은 수많은 발기부전 남성에게 새로운 삶을 다지는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식약청은 최소한 '먹어도 죽지 않을 만한 사람'에게만 판매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일까? 정력에 좋다면 바퀴벌레까지 잡아삼키는 화려

한 전과(?)를 숨길 수 없는 남정네들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식약청의 비아그라 판매 방식은 아무래도 졸속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성적으로 멀쩡한 남자도 간혹 발기부전이라는 당혹을 경험한다. 한참 잘 나가던 시절, 시도 때도 없이 아무 곳에서나 별떡별떡 일어나 소리 없이 마구 외치며 들쭉시던 그 문제가 아가 어느 날 고집스럽게 웅크리고 앉아 도통 움직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심한 변덕이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현시 하는 페니스는 스위치를 누르면 금세 작동되는 피동의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두번의 직무유기를 아주 망가진 폐물로 체념할 것까지는 없다. 그야말로 일과성 발기부전증(situational impotence)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엔 응석부리는 페니스를 잘 어르고 다독여 주면 다시 예전의 고분고분한 성질을 되찾을 수 있다. 뭐니뭐니해도 최고의 명품은 역시 우직한 성질의 페니스다. 하지만 만성적인 태업이나 파업은 남자를 긴장케한다. 무마(撫摩)나 선무도 아무 쓸모가 없

다.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 둘 수도 없다. 그것은 곧 남성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발기 기동의 물리적 상태와 발기세포의 화학적 성상(性狀) 그리고 개체의 제반 환경이 페니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페니스는 페니스가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필요로 한다. 시상하부-뇌하수체-고환 축(軸)에서 이와 같은 내분비 환경을 자동으로 설정해준다. 페니스에 정보를 전달하고 발기 및 이완을 명령하는 메시지는 신경이라는 유선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발기 메시지는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 등을 통해 전달되며 이와 같은 정보 전달체계는 적합한 내분비 환경 하에서 이루어진다. 명령을 받은 페니스는 혈액이 유입되는 페니스 입구를 활짝 열어 발기 기동 내부로 다량의 혈액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페니스의 혈액 배출구를 폐쇄시켜 90mmHg 이상의 압력을 만들어 뽀뽀 발기라는 경이로운 변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비아그라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은 금물이다. 만능의 수단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57